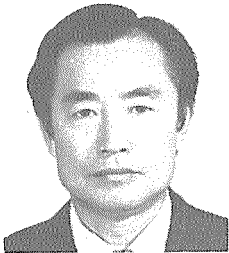


輸出産業 基盤과 中小企業 育成



韓 渉 圭
中小企業中央會 弘報室長

중소기업의 경영형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의식 및 경영전략과 생산·판매·기술개발 등에 있어 인간관계가 대기업에 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들의 경영방식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20년간 제발로 찾아오는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알아서 하청만 받아 장사하던 습성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었다.

1. 産業구조상의 課題

그동안 우리나라 經濟는 高度成長을 이룩해 왔고 현재는 그 先進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成長은 60年代 輕工業 중심의 수출확대 정책과 70年代 중반의 重化學 중심의 經濟政策 등 政府가 의욕적인 成長政策을 추구한 끝에 이루어졌으며, 모든 정책들이 大企業 위주의 産業政策으로 일관해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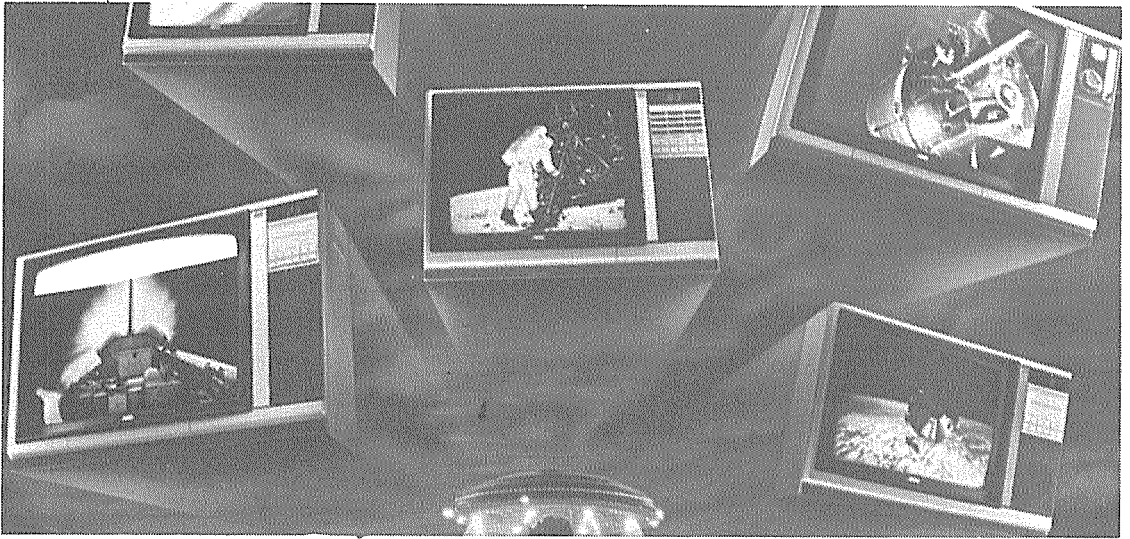
이와 같은 政府主導의 高度成長政策으로 말미암아 성장에는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國際收支의 惡化라든가 또 이에 따른 外債의 누적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中小企業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國民經濟上 絶對的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체수·종업원수·부가가치 면에서도 우리 經濟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 育成은 균형된 經濟發展의 일환으로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 國民經濟의 總集約으로 나타나는 國民所得을 최종 集計한 것이 물론 GNP로 나타나지만 중간과정에서 여러가지 中間財의 輸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輸入의 代替없는 지속적인 輸出增大 및 國際收支 개선이라든가 外債의 감소는 어려울 것이다. 中小企業이 部品과 소재의 안정적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輸出增大와 國際收支의 개선 및 外債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重化學 輸出은 선박, 자동차, 전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품목은 原資材 및 部品の 海外依存度가 높아 外貨稼得率이 비교적 낮다.

우리나라는 重化學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의 海外依存度 深化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輸入되고 있는 1,300여개 기초원자재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산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제비중이 낮다.

데 國產可能 原資材는 430여 品目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기초원자재를 사들이는데 엄청난 外貨를 소비하고 이것을 소재로 가공생산하여 輸出하는 관계로 부가가치가 높을 수가 없다.

이것은 國內産業構造가 中小企業의 저변확대 없이 大企業 위주로 급성장한 결과 部品과 소재산업 육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中小企業을 착실히 성장 발전시켰더라면 현재와 같은 國際收支 적자 및 先進國 輸入規制 충격 등이 적었을 것이며 부가가치는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輸出産業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中小企業 育成을 근간으로 한 産業構造 개선을 비롯, 制度·稅制·金融 등의 지원 체제가 더욱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輸出産業기반 확충을 위한 中小企業 育成의 필요성 및 대책을 부문별로 보기로 한다.

2. 部品國產化와 輸入代替

현재 우리나라 産業構造는 수출신장이 곧 輸入誘發이라는 등식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하여 資本材의 輸入代替戰略에 産業政策의 근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一般機械類, 정밀機械類, 化學製品 등은 總產出額에서 部品輸入이 차지하고 있는 輸入係수가 아직도 30~55%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中小企業 育成을 통한 이들 部品の 國產化는 바로 성장과 國際收支 改善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전기기기, 수송기기, 금속 등은 80년대末까지 實質成長 倍率이 2배 이상으로 기대되는 高成長 産業群이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다.

이들 産業은 前後方 關連 효과가 높기 때문에 우리 經濟의 成長을 선도할 것이며, 輸出의 주도 업종임과 동시에 輸入의 大宗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産業에서 中間材의 國產化率을 높이기 위하여 部品産業과 部品專門業체로서 中小企業을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품의 특성과 생산방법에 입각하여 大企業과의 系列化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成長産業들의 中間材 輸入代替를 위하여서는 資金지원과 세제상의 유인을 대폭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섬유, 철강, TV, 선박 등 大企業에 의한 小數 戰略商品을 대량으로 輸出하여 수출신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이들이 현재 輸出市場에서 시장점유율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으로부터 輸入規制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저변을 확대

하기 위하여 多品少量 注文에도 응할 수 있는 産業體制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품종 소량 주문체제는 또한 中小企業의 育成과도 바로 連繫가 되며, 部品資材의 輸入 代替化 戰略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3. 少額輸出 促進 對策

우리는 대만이 貿易收支에서 한국에 앞서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하였고 작년도 美國市場에서 만도 우리가 100억弗을 輸出하였을 때 150억弗을 輸出할 수 있었던 열쇠가 바로 多品種 少量 注文体制을 輸出의 기본전략으로 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中小企業들이 그들의 각종 제품을 輸出할 수 있도록 産業조직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輸出入 節次를 中小企業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다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少額輸出의 범위를 늘리고 이에 대해서는 결제조건, 수출검사 등 여러가지 수출절차에 특례를 적용하는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또한 국내외 시장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각 輸出組合 및 協會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中小企業이 적극적으로 輸出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분야의 海外協力 및 海外投資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中小企業의 海外進出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시장개척을 위한 海外市場情報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中小輸出業체의 각종 國內外 박람회 참가유도 및 투자사절단 파견 등을 확대해야 함은 물론 교포실업인과 공동으로 中小企業製品 海外상설전시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大韓貿易振興公社에서 추진중인 中小企業 海外支社 설치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市場多邊化와 美·日 편중 改善

우리의 輸出市場은 70年代의 美國 편중도가 많이 시정되어 80年代에는 輸出對象國이 17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물량면에서 볼 때 美國과 日本에 대한 依存度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輸出市場 多邊化가 다

소 부진한 것은 中東 아프리카 中남미 등 대부분의 新市場開拓 對象國들이 自國의 外貨輸入減少 또는 外貨사정 등으로 수입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데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現地 工場建設을 비롯, 中小企業 海外投資의 확대로 輸出市場을 더욱 多邊化시키고 아울러 기존시장도 수요를 심층 분석해 輸出物量 擴大를 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65年 국교정상화 이후 對日貿易 역조액은 300억弗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무역역조가 누적된 것은 日本의 경우 製品輸入이 總輸入의 25%에 불과한데다 産業構造가 매우 排他的인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쪽에서 보면 原資材와 資材材 등 産業의 높은 對日依存度와 1次 產品 및 輕工業製品 中心의 對日輸出構造의 취약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對日貿易赤字의 급격한 減少는 兩國産業의 構造上 지 금 당장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産業構造 高度化와 경쟁력 제고로 輸入代替와 輸出增大를 꾀하고 投資 및 技術導入 多邊化로 對日依存度を 줄여 나가고 상호 보완적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輸出業界의 日本市場開拓 독려를 비롯, 中小企業製品의 對日 전시 판매회 개최 등으로 輸出촉진을 꾀하는 한편 불요 불급품의 輸入억제, 수입선 다변화 시책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貿易會談을 통해 日本의 市場開闢과 技術移轉 교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政策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5. 技術開發支援과 自助努力

우리나라 企業의 賣出額 대비 技術開發 投資는 0.67%이나 中小企業은 0.28%에 불과하고 아직 초기 창업단계에 있다. 그러나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의 경우는 2.75%로 나타나 中小企業의 生産性向上, 기술혁신의 대상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新技術 및 新業種의 企業化와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이나 모험사업은 中小企業의 育成 방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육성대상의 모든 中小企業이 技術集約化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체질개

편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中小企業의 경영형태는 最高經營者의 經營意識 및 경영전략과 生産·판매·技術開發 등에 있어 人間關係가 大企業에 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는 特性을 갖고 있다. 이러한 特性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 中小輸出企業들의 經營方式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20年間 비교적 쉽게, 제발로 찾아오는 外國 바이어들로부터 앉아서 하청만 받아 장사하던 습성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外國 바이어들의 주문에 의존하다보니 海外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各國市場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集積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新商品을 개발하거나 기존상품이라도 품질·포장·디자인 등을 새로운 수요 변화에 対応해서 개선시키는 努力이 부족했다.

이런 狀態에서 低賃金を 배경으로 우리와 같은 방식의 生産體制를 갖춘 後發開途國이나 他中進國들과 경쟁하는 여건이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또한 既存市場에서 우리나라 業체끼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데도 新市場 개척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能力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들이 스스로의 體質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먼저 中小企業들은 協同化, 現代化, 國際化등을 촉진하고 政府도 그러한 방향으로 협력하는 企業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政策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固有中小企業 業種 지정과 有望業種 선정을 보다 현실화하여 존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資金支援, 稅制支援, 技術指導, 經營訓諫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他中小企業들도 지정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大·中小企業系列化 체계 확립

우리나라 中小企業들은 先進國에 비하여 產

業體數, 從業員數, 生産額, 부가가치 등 諸比重이 낮다. 이것은 産業構造의 연관 효과저위와 海外依存의 經濟構造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산업의 전반적인 國際競爭力 弱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總輸出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輸出도 우리나라가 32.4%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하여 日本은 40%, 台灣은 65%에 이르고 있어 國際景氣 변동에의 적응력 약화와 經濟構造面에서의 景氣対応力이 적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中小企業 業種構造에 있어서도 전자·기계 등 성장산업, 技術集約産業의 비중이 日本과는 달리 낮고 그 결과 部品工業의 주축이 되는 전자·기계산업의 大企業과 中小企業, 母企業과 하청企業의 연계관계가 미약한 産業構造上 열위를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系列化의 미흡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中小企業의 系列化 比率은 1977年 0.3%에서 계속 증가하여 84년에는 6.9%에 달하여 政府의 中小企業育成施策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日本의 60.7%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으며 外國企業과 일정한 契約에 의해 部品을 공급하는 國際系列化도 일부 착수는 되고 있지만 큰 비중을 점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系列化라는 生産構造面 이외에 母企業과 영세企業間에 이루어지는 단가 결정, 외주업체 결정과 대금결제를 포함한 거래조건의 不等價 交換 및 불공정거래는 中小部品産業成長의 가장 큰 애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최근에 와서 모기업과 영세기업간에 系列化 契約을 체결할 경우 品質要因을 제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母企業을 중심으로 관련 계열기업의 협의회 조직 등 바람직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추세가 中小企業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 및 단체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